

# 호프집 토론... 자정까지 15개일정 “1초도 아깝다” 72시간 철야 유세

## ■ 장병완 후보

“예산 전문가라며, 올 겨울 난방비는 걱정 없겠지?”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다는데, 남구를 제대로 살릴 수 있나?”

26일 오전 10시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민주당 장병완 후보가 노인들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대부분의 질문은 다가올 겨울철 노인복지관 난방비 지원문제였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 때문이다. 김문호(76)씨는 “남구재정이 악화돼 9월부터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는 데 올 겨울 난방비가 제대로 나오겠느냐?”라며 “예산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장 후보는 “남구지역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최대 관심사인 만큼 국회에 입성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올 겨울 난방비 걱정부터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여기 저기서 “정말이지.”라며 박수로 환호했다. 장 후보는 이날 오전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주로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한 표’를 호소했다.

오후 5시, 광주 남구 백운 광장에는 때아닌 연두색 물결이 장관을 이뤘다. 연두색 모자를 쓰고, 연두색 티셔츠를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장병완, 장병완’을 연호하자 그 사이로 장 후보가 손을 흔들며 입장했다. 유세 차량에서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의 지원



유세가 이뤄지고 있었다. 박 최고위원은 “장 후보 같은 예산전문가가 국회에 없다. 지역발전과 남구발전을 위해 예산전문가인 장 후보를 이번 선거에서 꼭 뽑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세에 이어 장 후보는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청년과 CEO의 일자리 창출 토크쇼’에 참석했다. 광주지역 청년 및 주요 기업 CEO들이 참석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 민주 장병완·민노 오병윤 후보 동행취재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 후보들은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수 있다’라는 사즉생(死即生)의 자세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24시간 철야 선거운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남은 시간 사력을 다해 표밭을 누비고 있는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동행취재를 통해 엿봤다.

### 내용의 자리였다.

참석한 청년들은 “지방출신이 취임하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 수천 배 힘든 일”이라며 “기업과 경제를 잘 아는 리더들이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장 후보는 “광주·전남의 쌀을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에서 탄소배출권을 가져오는 사회적 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에서 가져온 탄소배출권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활용하면 광주공장의 생산량이 늘어 일자리가 또 창출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청년일자리 창출 토크쇼를 마무리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인근 대형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즉석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장 후보는 이날 오전 5시에 기상해 밤 12시까지 출근·퇴근길 인사에서부터 집중유세, 차량 게릴라 유세, 릴레이 유세 등 총 20km 이상을 도보와 차량을 이용해 돌며 15건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 ■ 오병윤 후보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 따끔한 맛을 보여 줘야 한다” “민주당 깃발만 쫓으면 당선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이번엔 바꿔줘야 한다”

26일 새벽 5시, 광주 남구 진월동 B 찜질방은 갑자기 민주당 성토장이 됐다. 민주당 동당 오병윤 후보가 선거일까지 72시간 철야 선거운동에 돌입한 이후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찜질방이었다.

오 후보는 찜질방을 찾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민주당의 일당 독점이 광주 발전을 저해했다”면서 “민심이 많이 변화한 만큼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광주 국회의원 1명은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의 호소에 대다수 청·장년 층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김영철(42)씨는 “그동안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생각에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온갖 잡음을 일으키며 광주시민을 실



망시킨 데 이어 이번 보궐선거 공천도 지역민의 여론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거리낌없이 토해냈다.

김씨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한번 혼내주자’고 한다”며 주변 여론도 전했다. ‘민주당 뒷받침’인 남구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부글거리고 있음을 반증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정부터 광주대 주변과 진월지구, 무등시장 일대, 찜질방을 돌며 첫

철야 선거운동을 벌였다.

피곤한 몸에도 잠은 쏟아지고, 발걸음은 처절대로 처졌지만, 단 1초도 아깝다는 생각에 오 후보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투표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에 한숨 자지 않더라도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오 후보는 “광주를 새롭게 바꾸는데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며 “남은 시간 남구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저의 진심을 알리는데 마지막까지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찜질방을 나선 오 후보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오전 6시부터 남부 시외버스터미널과 백운 로터리에서 집중유세를 벌이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40년간 남구 주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민주당은 나하산 공천을 하고 주민을 무시했다”며 “민주당은 이번에 주민들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촌지역과 월산 4·5동, 주월1동, 백운 1·2동, 사직동 등 남구 면적의 절반을 넘게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가능한 많은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골목 골목을 누볐다. 오 후보는 “만나는 유권자들 대부분이 남구 주민을 하를 같이 섬기는 정치, 남구 주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하라고 조언했다”며 “겸손하고 새로운 정치로 남구 주민의 뜻을 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병완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 민주-민노당

### ‘흠집 내기’ 공방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6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 4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흠집 내기’ 공방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노동당 전·현 지도부와 야 4당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은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오병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나명주기자 mjna@

## “민주당은 민심 외면 독재정당”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공천을 했다”면서 “오병윤 후보의 약진과 당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은 민주당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 “오병윤 후보야말로 통 큰 연합정치, 힘 있는 연대정치로 광주시민의 열망인 2012년 정권교체의 주춧돌을 놓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양 정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맹공을 펼치고 있는 것은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양 당 후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접전을 펼치고 있어 ‘우위’를 잡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권일기자 cki@

## 황일봉씨, 특정후보 지지 논란

### 민노 “노병윤 지지”...황 “지지한 적 없다”

7·28 국회의원 재보선을 이틀 앞두고 황일봉 전 광주 남구청장의 특정 후보 지지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황일봉 전 청장이 16명으로 구성된 전·현직 전남대 총학생회장단 대표 명의로 오병윤 민노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전 청장은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일부 언론사와 통화에서 “(오병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니 이름을 빼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장병완 후보 측은 성명을 내고 “황 전 청장이 ‘오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장 후보 측은 “오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자, 곧바로 밝혀질 일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2차레나 지지선언에

명의를 도용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명의도용당’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후보 측은 이날 선관위에 오병윤 후보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관계자는 “선거 본부에서 황 전 청장의 지지의사를 확인했고, 오래전부터 오 후보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오병윤 공동선거대책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일봉 전 남구청장의 오병윤 후보 지지를 거듭 확인한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마저도 악의적으로 왜곡·비방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노당은 대안 없는 투쟁정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지지를 ‘지역정치 독점’으로 활용하며 ‘민주당 심판론’을 주장하는 것은 광주시민과 호남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도와주는 한나라당 2세대 식 주장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민노당은 한미 동맹의 철폐를 주장하고 어떤 대안도 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정당”이라며 “이 때문에 민노당은 무책임하고 대안없는 과격한 투쟁정당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민노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향해 원색적인 표현으로 공격하고 나선 것

은 남구 보궐선거에서의 위기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노당도 이에 맞서 ‘민주당은 광주 민심 외면 정당, 야권단일화 외면 정당’이라고 비난하며 야 4당·시민사회단체 단일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권영길 전 대표, 임낙영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은 이날 오후

**조이 여행사**

234-3222

**추석황금 연휴 추석 특가**

스기노이유급 호텔 - 579,000 -